국립경주博 '신라불교'로 불교조각실 새단장

12월 12일부터 불교조각실 개편 전시

백률사 금동약사여래 등 70여 점 전시

유물과 함께 다섯 편의 영상도 상영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신라 7세기, 보물.



이차돈 순교비, 통일신라 817년(또는 818년).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12월 12일부터 신라 불교조각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전시실을 선보인다. 이번에 신라미술관 1층에 새로 마련한 불교조각실은 백률사 금동약사여래 등 신라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불교조각 57건 70점(국보 1건, 보물 2건)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실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색채와 장식을 최소화한 공간 연출과 노출 전시로 조각상이 지닌 조형성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면진 받침대 설치, 전면 저반사 유리 도입으로 문화재의 안전과 함께 최적화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천년의 신라 역사를 지켜온 다양한 불교조각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역사, 전설, 정토라는 개념 위에 불교조각의 아름다움과 시각적 다채로움을 선보인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각각의 전시에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믿음, 신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위안을 주고 전설이 된 부처와 보살 이야기, 불교적 이상세계인 정토가 전하는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차돈 순교비를 만난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의 행적을 문자와 이미지로 기록한 비석이다.

제1부 '신장(神將), 신라와 불법(佛法)을 보호하다' 에서는 불교가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라 사람들의 믿음을 신장상이라는 유형의 조각을 통해 보여준다. 금강역사, 사천왕, 팔부중 등 다양한 신장상이 보여주는 강렬한 표정과 근육질의 몸, 역동적 자세는 불국토 신라를 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석굴암에서 발견된 금강역사상 단편(얼굴, 팔, 손)과 천불소탑(千佛小塔)도 함께 선보인다.

제2부 '전설이 된 신라의 부처와 보살' 에서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부처와 보살이 등장하는 설화를 배경으로 신라의 불 · 보살상을 소개한다.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인왕동 출토 석조불좌상, 경주 남산 용장곡 출토 불두 등이 소개된다. 낭산 출토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조십일면관음보살상, 읍성 출토 석조여래입상 등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국제양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통일신라 불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기부처' 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별도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감상의 집중도를 높였다.

제3부 '약사여래의 정토' 는 팔각 평면에 돔 천장을 올린 성소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여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을 단독 전시했다. 백률사 불상은 180cm에 가까운 크기가 인상적이며 조형적 완성도가 뛰어나 신라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꼽힌다. 깨달음과 더불어 청정한 유리광세계를 상징하는 약사여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중에게도 위안과 안식을 주기에 충분하는 평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품을 다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조각의 입체성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기존의 정면 위주의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360도 감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자유로운 관람 동선으로 관람객들이 조각 사이를 거닐며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역시 전면에서 수준 높은 조각과 주조기술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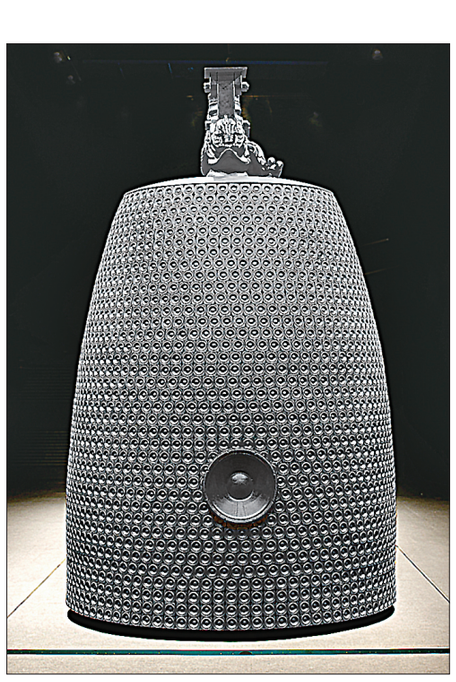
이번 전시실에는 유물과 함께 다섯 편의 영상을 상영한다. 도입부 이차돈의 순교에는 디지털 맵핑영상 '이차돈-꽃비 내리는 길' 을 20분마다 상영하여 불교 공인의 계기가 된 역사를 한 층 더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제1부에서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신장상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영상 '돌과 빛으로' 를 상영한다. 또한 석굴암 사진을 활용한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석굴암 조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2부에서 〈삼국유사〉에 전하는 불 ·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한 미감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영상 '불국(佛國)에 닿은 신라인의 삶과 꿈' 을 상영한다. 더불어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신선암 마애불, 배동 삼존불 등 경주 지역의 불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치 경주 곳곳을 답사하고 있는 듯하다.

전시실 로비에는 불교조각실의 대표 전시품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축소 모형을 점자 설명문과 함께 전시하고 있어 관람객은 전시품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다.

이번 개편 전시는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이 진행해온 전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람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은 "마치 숲속을 걸어가듯 신라 불교조각 사이를 누비며 신라 불교조각의 힘차고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감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전시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시대의 소리 들려주는 스피커에밀레종



한원석 – 성덕대왕신종.

한원석 초대전 '無心–BLACK Silhouette'

서울 금호알베르 12월 17부터 31일까지

버려진 스피커 3088개 모아 6176번 납땜

높이 3.7m 폭 2.3m 성덕대왕신종 선보여

설치미술가이자 건축가인 한원석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국보 제29호)을 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금호알베르에서 한원석 초대전 '無心-BLACK Silhouette' 을 개최한다.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버려진 스피커 3088개를 모아 6176번의 납땜을 통해 완성한 높이 3.7m, 폭 2.3m의 성덕대왕신종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지난 2월 경주엑스포공원 엑스포문화센터에서 같은 모습의 황금색 성덕대왕신종을 전시한 바 있다.

이번엔 'BLACK' 이다. 어떠한 채색도 없는 스피커 본래의 모습으로 성덕대왕신종을 재현했다. '무심(無心)' 은 마음을 비워냈을 때 보이는 것들의 표현으로, 이것이 곧 '블랙 실루엣' 이며 내려놓고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종 안쪽에는 모든 스피커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소리를 낼 수 있게 80개의 앰프를 설치했다. 각각의 앰프가 서로 다른 음원을 재생하며, 이를 하나의 채널믹서가 컨트롤한다. 나-너-우리의 소리를 더한 합창, 개개인의 소리는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큰 실루엣을 만든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보고 듣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깨달음 속에서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는 인간 심성에 내재해 있는 '빛과 그림자' 를 주제로 선택했다. 한 작가의 심연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거룩함과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의 사유가 있다. 정형을 비정형화하고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은 인간적이며 솔직한 감성들 사이에서만 예술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은 인간의 힘겨움을 줄이고 희망을 보게 한다.

박재완 기자

불복장 의복 복장물, 현대 공예로 재현되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김명자 작가 '불복장'

복장물 해인사 요선철릭 등

모티브 삼아 현대적 재현해



대통령상 김명자 작가의 불복장 중 요선철릭.

불복장 복장물로 발견된 고려시대 의복인 해인사 요선철릭과 문수사 답호가 현대 공예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회' 를 서울 강남구 소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결' · '올' 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전통공예 12개 분과에서 총 311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 전문가 현장실사, 2차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비롯한 7개의 본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심사결과 대통령상에는 김명자 작가의 '불복장(문수사 답호, 해인사 요선철릭)' 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요선철릭(국보)과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답호(보물)를 모티브로 해 창작됐다.

복장유물인 해인사 요선철릭과 문수사 답호는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고려시대 의복으로 당시 복식사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정교하고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제작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전승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2. 12. 26(월) ~ 2023. 02. 10(금)	·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3. 02. 17 (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7.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